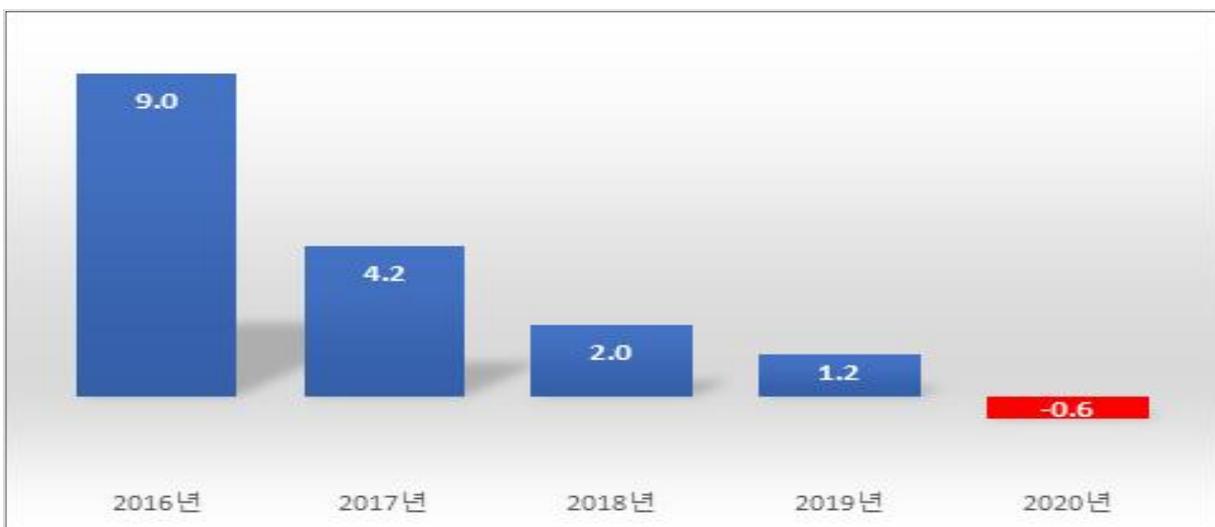


- **공기업 36곳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적자 6천억 원 기록**
 -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
 - 2016년 9조 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4.2조 원 → 2018년 2조 원 → 2019년 1.2조 원으로 감소하다 작년에는 적자로 전환
- **공기업 수익성 악화는 건전성 악화로 귀결... 공기업 부채 400조 시대**
 - 지난해에는 397.9조 원으로 2019년 388.1조 원 대비 약 10조 원 증가
 - 2016년 363조 원 → 2017년 364.1조 원 → 2018년 371.2조 원
- **공기업의 수익성·건전성 악화는 文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정책 탓**
 - 탈원전, 한전공대 설립,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공약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공기업 동원
 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원 확대 정책 강요
 - 340개 공공기관 임직원, '16년 308,417명 → '20년 409,347명, 100,957명 증가
 - 36개 공기업 임직원, '16년 121,350명 → '20년 144,494명, 23,146명 증가
- **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뒷감당은 '국민 뭇' 입을 명심**
 - 공기업 부채도 나랏빚 체계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감시가 필요
 - 민간 대형은행처럼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

공기업 36곳 지난해 당기순이익 첫 적자 기록... 文 정부 경제정책 탓

단위: 조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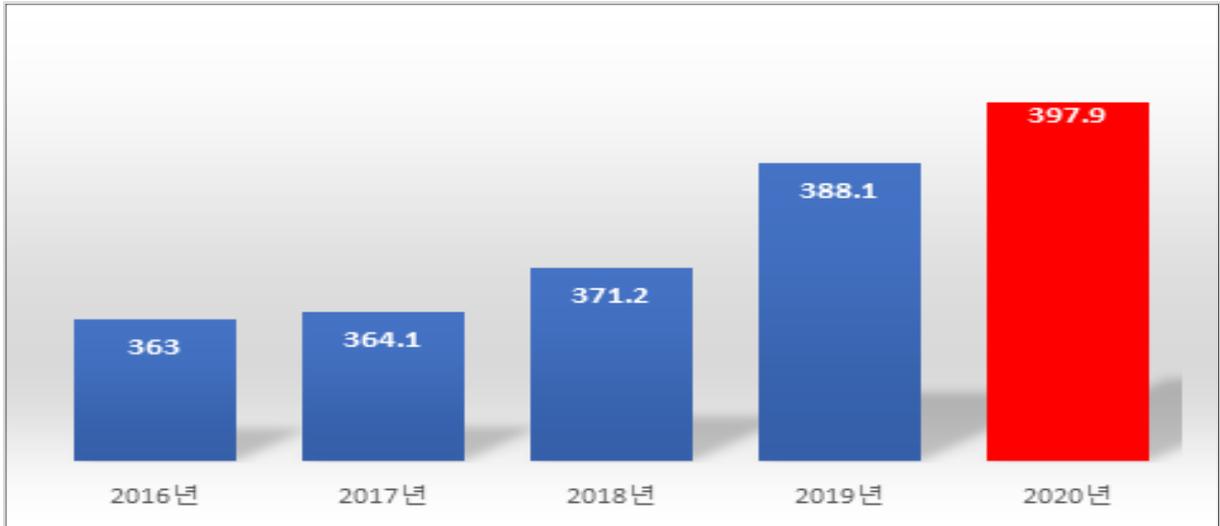


자료: ALIO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) <http://www.alio.go.kr/statisticsStat1.do>

주: 340개 공공기관 중 36개 공기업 기준(시장형 16곳+ 준시장형 20곳)

공기업 부채 400조 원 시대

단위: 조 원



자료: ALIO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) <http://www.alio.go.kr/statisticsStat1.do>

주: 340개 공공기관 중 36개 공기업 기준(시장형 16곳+ 준시장형 20곳)